

제1대 전주 학생의회 ‘분과위회의’ 회의록 (학생생활 위원회)

| | | | |
|---------|--|-----|----------|
| 회의 일자 | 2023.05.22 | 작성자 | 이두영 멘토 |
| 회의 장소 | 학생생활분과 특방 | 위원회 | 시설환경 위원회 |
| 회의 참석자 | 임현우 의원, 장예정 의원, 윤수민 의원, 주서현 의원, 윤용빈 의원 (전체 의원 6명 중 5명 참여) | | |
| 회의 안건 | 1. 첫 번째 대표안건 세부 내용 결정 완료 | | |
| 회의 내용요약 | <p>■ 안내사항 등 회의 안건 외 내용</p> <p>1. 첫 번째 대표안건 세부 내용 결정 완료</p> <p>가. 제안 이유 세부화</p> <p>나. 제안 주요 내용 세부화 中 대상 구체화</p> <p>-주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과 전주시 소재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채택</p> <p>다. 제안 주요 내용 세부화 中 지원 방식 구체화</p> <p>-정족수 5인 중 5인 만장일치로 충전식 교통카드 제공 방식이 채택 됨.</p> <p>라. 제안 주요 내용 세부화 中 지원금 구체화</p> <p>-지원금의 경우 150,000원으로 결정, 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상시 지원으로 하고 지원 기간의 간격은 학기 간격으로 결정됨.</p> <p>마. 제안 주요 내용 세부화 中 신청 방법 구체화</p> <p>바. 기대효과 세부화</p> | | |
| 회의 내용 | <p>1.첫 번째 대표안건 세부 내용 결정을 위한 토의</p> <p>가. 제안 이유 세부화</p> <p>임현우 의원: 시내버스 요금이 계속 인상되고 있음. 학생의 부담 비례함. 2021 7월에는 요금이 인상되고 2022년 1월에는 정기권이 인상되는등 계속해서 버스 요금이 조정되고있는 것으로 알고 있음. <u>질의 및 보충 의견)</u> 장예정 의원-2011년, 2016년, 2021년에 계속해서 전주시 시내버스요금이 인상되어왔다.로 정리자. 윤용민 의원-5년주기로 인상되는 것으로 보임. 2022년 정기권 가격 인상또한있었기에 계속 되서 인상되는 버스요금이 학생들에게 부담으로 다가온다는것을 강조하자.(2011년, 2016년, 2021년 전주시 시내버스요금이 인상, 2022년 정기권인상에 따라 버스를 이용해서 등.하교하</p> | | |

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여론형성.)

장예정 의원: 경기도 등과 같이 다른 지역에서도 실시하고 있음.

현재 경기도와 충남시 등의 시도 단체의 경우 교통비를 지원하며 학생들의 이동권을 보장하고 있다. 정책 제안 이유에 추가하면 정책의 실효성을 보여주기 좋을 것으로 보임.

질의 및 보충 의견)

윤용빈 의원-타 시, 도에서 실시하고 있는 점을 기반하여 학생들의 만족도를 자료로 추가하면 좋을 것 같음.(<https://naver.me/5HEwsusA> 해당 자료 사이트 링크)

장예정 의원(위원장)-제안 이유 정리

1. 시내에 많은 학생들이 대중교통 편을 이용하여 등하교를 하고 있음(설문 자료 추가)
2. 학교에 다니는 8개월 동안 약 400,000원 만큼에 교통비가 소모되는데 이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되는 금액임
3. 2011년, 2016년, 2021년 전주시 시내버스요금이 인상, 2022년 정기권인상에 따라 버스를 이용해서 등.하교하는 학생들에게 부담이 된다는 여론형성.
4. 경기도, 충청남도 등 유사한 정책이 먼저 실행되고 있는 타 시,도의 학생 만족도가 높음(윤용빈 의원이 첨부하였던 링크 추가)

나. 제안 주요 내용 세부화 中 대상 구체화

임현우 의원-전주시 내부의 중고등학생이 좋을 것 같음.

임현우 의원-학교와 집이 일정 거리 이상인 학생으로 제한하고자함. 제주의 경우 1.5KM를 기준으로 시행중임.

질의 및 보충의견)

윤용빈 의원-보편적 복지를 이유로 반발하는 학생이 있을 것임.

장예정 의원-전주시 내부에 있는 중고등학생 전체를 대상으로 하자.

주서연 의원-1.5KM~2KM로 제한을 두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윤수민 의원-모든 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면 좋겠지만, 예산적인 부분을 등을 고려하면 제한을 둔 후 확대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장예정 의원-거리에 따른 신청 제한을 두고 전주시에 거주하는 중고등학생과 전주시 소재에 재학 중인 중고등학생을 대상으로 지원하는 방안을 채택(정확한 거리의 경우 전수조사 후 설정하는 것으로 결정)

다. 제안 주요 내용 세부화 中 지원 방식 구체화

윤용빈 의원-주요 내용에서는 특별히 지원 방식을 구체화 해야할 것으로 보임.

경기도의 경우 일정 금액을 사용한만큼 지역화폐로 캐시백 해주고 있고 지역별로 지원 방식에 차이가 있음.

장예정 의원-제주도의 경우 올해부터 교통비 지원을 하고 있음. 해당 방식의 경우 거리가 1.5km 이상인 학생을 지원함. 이후 신청은 학교를 통해 신청서, 주민등록등본, 통장 사본 등 서류 제출 후 보호자의 계좌로 지급되는 형태임. 충남시의 경우 1일 3회까지 앱 지원금으로 환급해주고 있음.

임현우 의원-지원방법의 경우 청소년 본인 명의의 지역화폐로 지원금 지급 (단, 만 13세 또는 휴대폰이 없거나 지역화폐 App을 설치할 수 없는 휴대폰을 이용하는 청소년은 대리인의 지역화폐로 지급) 지원범위의 경우 경기버스(시내, 마을) 이용실적과 경기버스 이용 전후 30분 이내 서울버스, 인천버스, 전철을 이용한 경우에는 서울버스, 인천버스 및 전철로 환승한 이용실적도 지원함.

주서연 의원-일정 금액을 사용한 후, 한도를 정하여 50% 저도를 지원해주자.

질의 및 보충 의견)

주서연 의원-해당 방식으로 진행하였을 때, 등하교에 사용되었는 지 의문이 들 수 있다고 생각함.

윤수민 의원-교통카드를 발급해주는 것이 좋을 것으로 봄.

질의 및 보충 의견)

임현우 의원-본 의원도 일정 비용이 담긴 교통카드를 지급하는 형태가 좋다고 생각함.

윤용빈 의원-충전된 카드를 배부할 경우 일정 기간(학기중)에 사용하지 못한 금액은 자동으로 국고로 환수되는 방식도 좋을 것이라고 생각됨.

장예정 의원(위원장)-한도 제한을 두고 사용한 만큼 캐시백을 해줄 것인지, 충전된 카드를 배부할 것인지 투표가 필요하다고 생각함.

투표)

안건1. 캐시백 방식-0표

안건2. 충전식 교통카드 제공-5표(임현우 의원, 장예정 의원, 윤수민 의원, 주서연 의원, 윤용빈 의원)

※생활분과 의원 수는 6명이지만 5명 회의에 참여하여 1표는 기권표로 간주함. / **정족수 5인 중 5인 만장일치로 충전식 교통카드 제공 방식이 채택됨.**

라. 제안 주요 내용 세부화 中 지원금 구체화

주서연 의원-학기당 50% 정도인 약 100,000원을 지원해주는 것이 좋다고 생각함.

임현우 의원-1,150원 4주, 하루에 2번, 주에 5일 기준 한달에 46,000원이 사용됨.

장예정 의원-학기 당 3달 정도의 달 수가 있으므로 138,000원이 좋을 것으로 생각됨.

질의 및 보충의견)

윤용빈 의원-교육청 예산에 맞추어 해당 정책으로 낸 안에서 교육청에서 조정을 할 것으로 보임, 따라서 살짝 과대해서 제안하는 방안.

윤수민 의원-윤용빈 의원과 장예정 의원의 의견을 고려하여 150,000원으로 제안 후 추후 조정하는 방안을 제시함.

임현우 의원-지원 기간 간격의 경우 학기별로도 좋을 것으로 생각됨. 만약 제한이 불가능하다면 매달 기준이 좋을 것으로 보임.

질의 및 보충의견)

장예정 의원 방학 등을 고려하였을 때 학기마다 지급하는 것이 좋을 것으로 보임.

※지원금의 경우 150,000원으로 결정(추후 변경될 가능성 있음.), 지원금의 신청 기간은 상시 지원으로 하고 지원 기간의 간격은 학기 간격으로 결정됨.

마. 제안 주요 내용 세부화 中 신청 방법 구체화

장예정 의원-신청 방법의 경우 경기도 지역과 같이 앱이나 홈페이지를 이용해서 진행할지 아니면 제주도와 같이 학교를 통해 신청 받을지 논의하고자함.

질의 및 보충의견)

임현우 의원-온라인이 더 편리할 것으로 보임.

주서연 의원-신청 기간의 경우 전 학기 동안 받는 것이 좋아보임,

바. 기대효과 세부화

주서연 의원-자차를 이용하던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학교 앞 교통질서에 도움을 주어 학생의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음.

장예정 의원-기대효과 이전 회의 본까지 합쳐서 정리함.

1. 학생들의 교통비 부담을 줄일 수 있음
2. 대중교통 이용이 늘면서 환경보호에 도움이 될 수 있음
3. 자차를 이용하던 학생들이 대중교통을 이용하며, 학교 앞 교통질서에 도움을 주어 학생의 안전에 도움을 줄 수 있음.